

## 영국 사례로 미리 보는 '위드코로나'

2021/ 9/ 8

Strategist

곽병열

(2009-7148)

brkwak@leading.co.kr

### I. '위드코로나'에 대한 영국 증시의 영향 분석

- 국내 코로나 백신접종율(9/7 기준)은 1 차 59.9%, 완전접종 35.8%로 진행 중이고, 추석 전 1 차 70% 달성이 예상되면서 이른바 '위드코로나' 단계로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임
- '위드코로나' 단계에 대한 금융시장 측면의 가장 좋은 사례는 '영국'이라고 판단함. 영국은 지난 7 월 19 일, 당시 63%의 높은 백신 완전접종율을 기반으로 '자유의 날'로 선포하고 방역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음
- 참고로 2019 년 기준 영국의 경제규모(GDP)는 28,271 억달러로 우리나라의 1.7 배 수준이며, 대표지수인 FTSE100 지수의 시가총액은 2.09 조 파운드(3,352 조원)으로 KOSPI100 지수(1,759 조원)의 1.9 배 수준임
- '위드코로나' 전후 영국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뚜렷한 선호현상 발견됨. 자유의 날(7/19) 이후 1 개월 간 글로벌 증시 대비 초과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위드코로나' 효과로 인한 경제정상화 가능성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함

<그림 1> '위드코로나'에 따른 영국증시의 초과수익률 관찰



자료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주: MSCI, 달러환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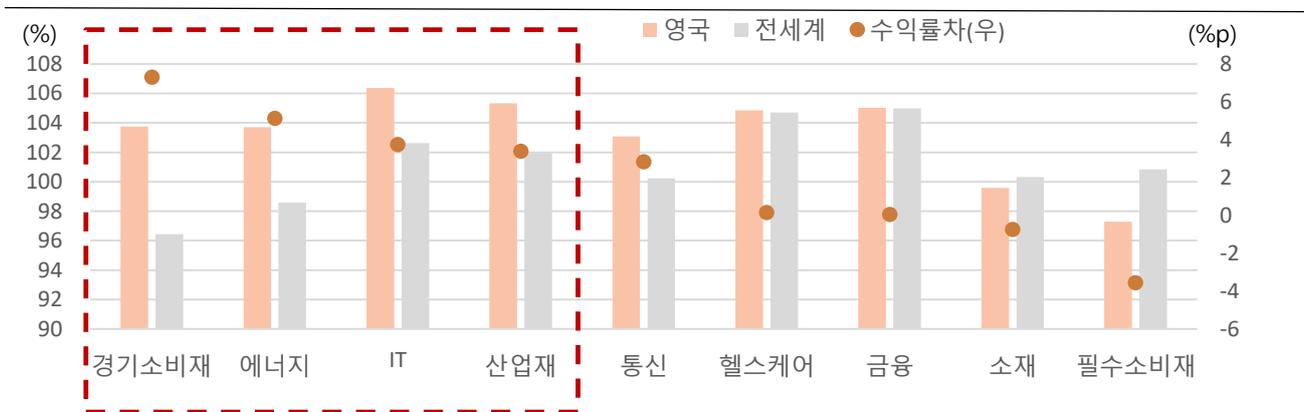
## II. '위드코로나' 효과는 어떤 업종-종목으로 반영되었나

- 영국 증시의 '위드코로나' 효과는 대략 1 개월여 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 최대 3%까지 누적초과수익률 현상으로 나타났음. 동 기간 중 업종 반응을 살펴본 결과, 글로벌 업종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으로 경기소비재(7.3%p), 에너지(5.1%p), IT(3.7%p), 산업재(3.4%p) 등에서 나타났음

- '위드코로나'로 인한 경제정상화 기대감은 내구재 소비심리 개선과 관련하여 경기소비재와 IT 업종, 경제봉쇄 해제로 인한 생산시설 가동률 정상화 가능성은 에너지와 산업재 업종 등의 강한 반등과 연동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 FTSE100 지수 구성종목 중 동 기간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낸 상위 5 개 종목은 롤스로이스(자동차, 22.3%), CRODA INTERNATIONAL(화장품원료, 18.9%), JUST EAT TAKEAWAY.COM(음식배달, 18.4%), Flutter Entertainment(스포츠베팅, 14.7%), Taylor Wimpey(부동산개발, 14.3%)임. 주목되는 점은 고급차, 화장품, 도박 등 '사치재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영국 증시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점임. 코로나 봉쇄 국면 중 참여왔던 '보복소비(pending demand)'에 대한 욕구표출이 주식시장의 종목선호를 통해 반영되었을 것으로 해석됨

<그림 2> '위드코로나' 이후 1 개월 간 영국증시의 업종 반응: 경기소비재, 에너지, IT, 산업재 선전



자료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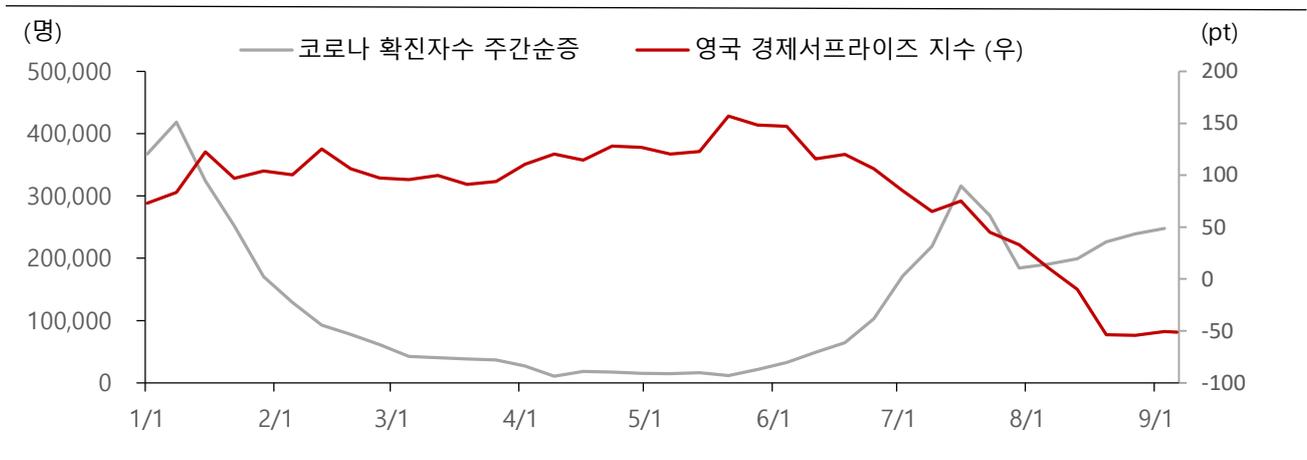
## III. 영국 증시의 '위드코로나' 지속성은 코로나 확진자수 폭증으로 후퇴

- 다만 영국 증시의 '위드코로나' 지속성이 1 개월여에 그친 점은 코로나 규제 해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된 확진자수 급증 현상과 이에 따른 경제지표의 부진 현상과 연계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자유의 날(7/19) 이전부터 코로나 확진자수 주간순증은 20 만명(일간 3 만명)을 돌파하며 방역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영국 경제는 감내했을 것임

- 영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경제지표 발표치와 전문가 전망치와의 괴리율)는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에 반비례하여 악화되면서 위드코로나로 인한 전문가들의 경기회복 기대는 대체로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최근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바닥형성을 시도하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치의 신뢰도는 최악을 지나 악화된 현실과의 키 맞추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를 통해 영국처럼 전면적인 해제가 아닌 단계적인 완화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수 관리가 가능해야만 국내증시의 '위드코로나' 효과를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그림 3> 영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의 부진: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의 영향으로 파악



자료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IV. 영국 '위드코로나' 사례의 시사점은?

- (1) '위드코로나 증시효과'는 글로벌 증시대비 1개월 정도 최대 3% 정도의 누적 초과수익률로 반영
  - 신흥국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 개선 기대됨
- (2) 업종별로는 내구재 소비관련주(경기소비재-IT), 가동률 정상화 수혜주(에너지-산업재)의 약진 현상
  - 다만 국내의 경우 가동률 저하 문제는 영국처럼 크지 않았음
- (3) 최상위 성과는 고급차, 화장품, 도박 등 '사치재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 대표적
  -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업종의 강세현상은 재현가능성 클 것으로 전망함
- (4) '위드코로나 증시효과'가 연장되려면 코로나 확진자수 관리를 통한 경제지표 훼손을 저지해야 함
  - 관리 가능하다면 현재의 변동성장세를 완화시키고 박스권 중단이상의 회복시도 예상

---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